

사회

요란한 봄비

오늘 호남지역 강풍·천둥·번개·우박까지

18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4도~8도, 낮 최고기온은 10도~13도 분포로, 평년보다 6~7도 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해상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모든 곳에서 2~4m의 물결이 일겠고, 특히 해안에서는 너울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항해·조업하는 선박과 낚시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대입전략 설명회 만원 지난 15일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열린 '2012학년도 대입전략 수립 설명회' 참석자들이 전국 주요 대학 입시전형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대학교협, EBS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학부모·수험생 500여명이 참석했다.

황사·꽃가루... 눈병 주의보

광주 안과 병·의원 결막염 환자 30~50% 늘어

황사 발생과 봄철 꽃가루가 겹치면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눈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 이후 황사 발생이 잦아지고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철저한 개인 위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황사 속에 포함된 중금속과 미세먼지 탓에 호흡기 이상 증세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천식과 심혈관질환 환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광주지역 안과 병·의원에 따르면 황사 등으로 인해 결막에 흡입이나 염증이 생긴 안질환 환자가 4월 들어 평소보다 30~50% 이상 증가했다. 이중 유아와 노년층에서 결막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눈 주위에 화장품과 속눈썹·렌즈 등을 사용하는 여성 환자들의 비율도 높은 실정이다. 황사 바람 속에 포함돼 있는 중금속이나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각결막 상피세포를 손상시켜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자극성 결막염을 일으킨다. 결막염은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과도하게 많이 흐르는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눈 속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과 통증이 있으며 눈 주위가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다. 결막염의 초기 증상이 생기면 항균 점안제 등의 약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데, 이 같은 초기에는 약국에서 적절한 점안제를 구입해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하지만 결막이나 각막 손상으로 2차 염증이 생기면 항균 점안제 등의 약물 투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결막염에 걸린 환자의 경우는 전염기간(약 2주) 동안 공공장소의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밝은안과21병원 최성호 원장은 "아이활동을 할 경우 보호안경을 쓰고,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씻고 수건을 따로 사용해 전염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결막염이 의심될 경우 냉찜질과 안약을 잊지 않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신혼여성 연산제 무료 제공

광주동구보건소

광주 동구보건소(소장 남현)는 내달부터 신혼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연산제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는 지금까지 임신부를 대상으로 연산제를 지원하던 타 시·군 사업과 달리 가임여성 위한 전국 유일의 보건사업으로, 동구에 주소록 둔 신혼여성이 동구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 즉시 연산제 2개월 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임신이 되었을 경우 영양제 지원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루어진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다시 세상의 빛으로! 함께 역사의 중심으로

5·18 31주년 슬로건 확정 가장 적절하게 반영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이 180편을 응모했으며 '5·18 정신계승'을 비롯한 '오월에서 민주·통일',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 공모작의 내용이 다양했다. 시상식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수상자에게 상금 20만원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행사 다채

20일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 기념식과 각종 행사가 열린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회장 정경수)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모여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구 광주시교육감도 참석하며 유공자들에게 대한 표창과 감사패 증정도 있을 예정이다. 전남남도 오는 20일 오전 11시 화순 하니울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박준영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군산, 남원, 옥산도.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전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6월부터 외부인사 5명 참여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제를 도입한다. 전남도교육청은 17일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개선 제안 등을 하는 청렴옴부즈만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청렴옴부즈만은 교육계와 법조계, 학부부,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외부인사(5명)로 구성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적용 대상 기관은 분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이며 결과를 분석, 일선 학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패와 취약분야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의견제시, 반부패 청렴활동 참여, 불합리한 예산집행 감시 등을 하며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권고 등도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본점 062-227-994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